

2021 제40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국제 일반공모전 상세요강

1. 취지

한국건축가협회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건축 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이의 전통과 의의를 계승하여 “대한민국건축대전”을 창설하면서 범 건축인이 참여하는 뜻 있는 국가적 행사가 될 것을 지향하였다. 이에 지난 30여년 동안 국내 건축공모전으로서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반공모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국제 공모전으로 개최하였다.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건축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자한다.

2. 주제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We are each other's environment.

[별첨1. 주제 설명]

3. 공모 조직

3.1. 주최/주관: (사)한국건축가협회

3.2. 후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4. 응모 자격

4.1.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적 상관없음)

4.2. 1인 1작품, 개인지원만 가능

5. 상세일정

내 용	일 정 (2021년)	비고
주제 공고	3월 8일(월)	주제 사전공개
공고 및 참가등록	3월 22일(월) ~ 7월 2일(금)	
1차 작품 접수	7월 2일(금) 18시까지	온라인 접수
1차 심사	7월 12 ~ 16일(예정)	온라인 심사
2차 작품 접수 (1차 심사 선정자에 한함)	9월 2주(예정)	방문 접수
2,3차 심사 및 최종 결과발표	9월 3주(예정)	
시상식 및 전시회	11월 (예정)	대한민국건축문화제

※ 상기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6. 심사

6.1.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

6.1.1. 건축전문가 7인

6.2. 심사기준(공통)

6.2.1 심사위원회는 1명의 심사위원장을 선임하고, 심사방법 및 당선작에 대하여 검토, 논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에 지원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2.2. 프로그램을 통한 건축완성 능력

6.2.3. 서론(issue)부터 해답(solution)까지의 아이디어를 풀어가는 과정

6.2.4. 주제 관련 적합성 및 독창성

6.2.5. 심사위원들은 최종평가 후 심사평을 제출한다.

6.3. 심사위원(가나다 순)

성명	소속	비고
김동현	세종대학교	
김순주	바우건축사사무소	
노승범	한양대학교	
박성태	정림건축문화재단	
백창용	해담은풍경 건축사사무소	
오신욱	라움 건축사사무소	
이성재	홍익대학교	

※심사위원에 대한 구체적 소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심사

심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선정자만이 다음 단계 심사에 참여 가능함.

1차 심사: 1차 제출서류 심사(총 지원자의 10% 내외 선발)

2차 심사: 2차 제출품 심사를 통해 입선 및 입상후보자 선정(TOP10선정)

3차 심사: 공개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입상자 선정(변경 가능)

7. 참가비

7.1. 1차 작품등록비: 5만원(KRW)

7.2. 주의사항: 결제 시 지원자 본인 명의의 카드 및 통장으로 결제 요청

※납부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8. 시상

- 8.1. 대상 1점: 상장, 상패 및 상금 500만원(KRW)
- 8.2. 우수상 4점: 상장, 상패 및 상금 각200만원(KRW)
- 8.3. 특선 약간점: 상장, 상패 및 상금 각100만원(KRW)
- 8.4. 입선 다수: 상장 및 상패
- 8.5. 상금에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세법에 따름

9. 참가등록

9.1. 참가등록

지원자는 **참가등록 기간인 2021년 3월 22일(월) ~ 7월 2일(금) 18시**안에 웹사이트를 통해 참가등록 및 1차 등록비를 납부해야 함
웹사이트 : www.kia.or.kr > 참여마당 > 일반공모전 > 접수

- ### 9.2.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익명성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지원자는 참가 등록 시, PIN(알파벳 하나와 아라비아 숫자 4자)를 지정해야함. 심사 결과는 모두 PIN으로 공지됨

10. 1차 작품 제출서류(참가등록 완료자에 한함)

10.1. 디지털 파일 자료 온라인 제출

- 패널 이미지 디지털 파일 A3 사이즈 2매 (JPEG/300dpi 이상)를 온라인 제출
- 파일명: PIN_001, PIN_002
(ex: A1234_001, A1234_002)
- 제출명: 성명_PIN_001
(ex: 홍길동_A1234_001, 홍길동_A1234_002)

※주의사항: 파일로 제출하는 이미지는 PIN 삽입 금지

- 텍스트 폰트는 최소 9포인트 이상
- 패널 포함사항

내용: 가로, 세로 구분 없이 그림, 사진, 스케치, 텍스트 등을 가지고 자유롭게 개념위주로 구성한다.(개념위주란 최종결과물이 아닌, 문제제기와 앞으로 풀어갈 방향성 등을 건축적으로 제시함을 의미)

10.2. 1차 작품 제출 방법

온라인 접수 (E-mail: competition@kia.or.kr)

11. 2차 작품 제출품 (1차 심사 선정자에 한함)

2차 작품 제출 대상자는 건축 모델, 패널(인쇄물) 및 디지털 파일을 제출함.

11.1. 모델(모형)

- 최대 가로 600 * 세로 600 * 높이 600mm 체적 안에 자유롭게 구성
(단, 자립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 단, 위의 사이즈는 최대 사이즈이며 지원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그 체적 안에서 자유롭게 작품을 표현하여 제작함.

11.2. 패널 인쇄물 1매

- 규격 가로 600 * 세로 1,200mm 1매
- 단면 인쇄물(세로방향), 패널은 PET지로 인쇄, 족자형 배너로 제작 후 제출
※제출물 패널(인쇄물)의 규격 및 제작형태는 추후 전시 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시 2차 작품 제출물 관련 공지 예정.

11.3. 디지털 파일 자료 제출(온라인 제출)

- 파일명: PIN_001, PIN_002
(ex: A1234_001, A1234_002)
 - 제출명: 성명_PIN_001
(ex: 홍길동_A1234_001, 홍길동_A1234_002)
- ※주의사항: 파일로 제출하는 이미지는 PIN 삽입 금지

11.4. 2차 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디지털 파일)
 - 방문 접수(모델 및 패널)
- 제출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건축가협회 일반공모전 담당자 앞 (변경 가능)

11.5. 유의사항

- 2차 작품은 성인 2인이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로 제작 바라며, 이동 및 보관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완성도 있게 제작할 것을 권장함.
- ※출품작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12. 3차 공개 프레젠테이션

- 12.1. 대상: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지원자에 한하여 평가
- 12.2. 발표시간: 발표5분, 질의응답 5분
- 12.3. 발표형식: 파워포인트로 구성. 음향/동영상 사용가능
- 12.4. 파일제출: 공개평가 1일전 18시까지 제출, 심사 당일 변경 금지
- 12.5. 발표언어: 영어 또는 한국어

12.6. 발표장소: 추후 공지

13. 공식언어 및 단위

13.1. 공식 언어: 한국어와 영어

13.2. 계량 단위: 미터법(Metric System)

14. 기타규정

14.1. 지원자는 공모전에 참가등록을 함으로써 이 규정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지원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4.2. 1차 제출 작품은 반출되지 않음.

14.3. 1차 작품과 2차 작품의 작품제목 및 개념이 동일해야함.

14.4. 등록확인 및 지원자의 인적사항, 작품제목(ID 및 PIN제외)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며, 수정은 등록 기간 중에만 가능함.

14.5. 지원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공모전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타 공모전에 지원했던 작품을 재제출한 경우, 타인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공모전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14.6. 지원자는 타인의 저작물을(자료)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별도의 출처 없이 무단 사용 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14.7. 제출 작품에는 지원자의 PIN 이외에는, 지원자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표현(학교, 이름 등)을 할 수 없음.

14.8. 작품의 저작권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작품집, CD제작 및 기타 홍보 등에 지원자의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주최와 후원사에게 귀속됨.

14.9. 작품집 제작 및 전시를 위해 본 협회에서 입상(선)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응해야 함

14.10. 질의/응답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가능함.(전화문의 불가)

14.11. 공모전에 관한 모든 변경 및 추가사항들은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시로 게시되며, 변경사항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14.1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당 해년도 건축대전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름.

[별첨] 주제설명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일상 속 타인들의 존재를 보다 더 선명하게 의식하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받는 총체적으로 연결된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올라 비스(Eula Biss)는 『면역에 관하여(On Immunity)』에서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고, 면역은 공유된 공간(We are each other's environment. Immunity is a shared space.)” 이라고 말한다. 미증유의 전염병 확산에 움츠러든 마음과 시야는 개개인의 삶을 파고 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팬데믹의 약속된 출구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빚지는 ‘집단면역’이라는 공동체적 해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만든다.

이제 개인의 공간에서 시야를 조금 넓히면 이웃과 동네가 눈에 들어온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계기로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일상, 가족, 동네, 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대규모 집합공간의 이용이나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게 되면서 집주변 생활권 내에 있는 편안하고 느슨한 공간들을 더 찾게 되고, 공동체의 가치나 로컬리티(Locality)에 대해서도 다시금 주목하게 된다.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가 구분했던 제1의 장소인 집과 제2의 장소인 일터는 뉴노멀의 새로운 일상 속에서 중첩되거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맞고 있지만, 그가 강조했던 집도 일터도 아닌 제3의 장소, 즉 일상의 행복과 비공식적인 공공생활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는 이 시점, 다양한 삶과 인식의 변화들을 담을 수 있는 건축공간과 도시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전환 속에서 개인과 가족, 집과 이웃, 지역사회와 도시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으로 새롭게 정의될 수 있을까?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이고 자족적인 사적 영역과 타인과 이웃하며 공유하는 공적인 영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엮이거나 양립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던져진 이 시대의 공동체와 도시건축공간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과 고민들에 대해 창의적인 통찰과 해법을 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We are each other's environment.

The unforeseen breakout of the COVID-19 pandemic transformed our lives and relationships. Although we engage in less communication with others, their presence in our lives even rather feels significant and now we realize that we are all connected to each other in an organic network of human relationship and have a great impact on the life of one another. Eula Biss said in her book, *On Immunity*, that we are each other's environment and immunity is a shared space. Individual lives fainthearted at the spread of the unprecedented pandemic are digging into our mindset and vision, but the only way to escape this dreadful nightmare is only through the principle of 'herd immunity' practiced by a collective body of the community.

If we broaden our perspective from personal space, we will see our neighbours and community. Remote work and distance learning inside our personal realm make us rediscover the value of our own lives, families, neighbourhood and community. As we avoid gathering in crowded places or moving long distances, we more often visit where we can feel more comfortable and relaxed, also pay more attention to the meaning of locality. Now the boundary between one's 'first' and 'second' place, which Ray Oldenburg referred to as home and work, become blurred, but the value and importance of 'third' places, as space where we can feel the happiness in everyday life and have specific experience as a member of a community, is being more convincing.

At this moment when there is both uncertainty of change and new opportunities, what should the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look like in order to accommodate changes in various lives and perceptions? How could we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family, between homes and neighborhood, and between communities and cities while facing the new social needs and the transition of the times? How can we spatially interweave shared public areas with each individual areas, and make them compatible? It is expected to see creative insights and solutions to various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the community and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s in this era.